

광주 '스마트공장배움터' 구축으로 4차 산업혁명 앞당긴다

AI 로봇·빅데이터 등 활용 상품설계부터 유통까지 디지털화 지역 특화산업인 차량용 공기청정기 생산 공정 등 기술 체험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에 4차 산업혁명 바람을 일으킬 스마트공장(Smart Factory) 배움터가 광주에 문을 열었다.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조기업의 스마트화가 시급하다는 점에서 스마트공장으로 시설을 개조하는 것은 물론, 이를 관리하고 운영해야 할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광주스마트공장배움터 개소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중소기업 제조 현장에 혁신을 가져오고, 관련 우수 인적자원이 지역에 공급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8일 광주 중진공 호남연수원에서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배움터를 구축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과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지역 중소벤처기업 단체인 제창, 회원사 등이 참석해 스마트공장배움터 개소를 축하하고 기술시연을 참관했다.

스마트공장은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AI) 로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해 상품설계부터 제조와 유통까지 기업활동 전 과정에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을 결합한 지능형 공장을 뜻한다. 스마트공장 배움터는 스마트공장 운영을 경험해

중소기업 일선 현장에서 근무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시설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현장 인력양성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실무 교육을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스마트공장 내에서 실제 생산품을 제조하며 스마트공장의 구성과 운영을 통해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다.

앞서 중진공은 지난해 2월부터 13개월여에 걸쳐 2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 호남연수원 2층에 356㎡ 규모의 광주스마트공장배움터 구축을 진행했다.

광주스마트공장배움터에서는 지역 특화산업이 디지털대전이라는 점에서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생산제품으로 하고 있다. 주요 특징은 최근 경제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탄소중립과 가상현실(VR) 실습이 있다.

시설을 살펴보면 최신 ICT 기술을 적용한 교육용 제조라인, 가상현실을 구현한 VR 실습실, PLC 실습실 등이다.

우선 탄소중립형 제조라인은 신재생에너지(태양광)를 전력으로 활용해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생산하는 전 공정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AI와 AR, EMS 등 최신 스마트공장 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VR 실습실은 VR 콘텐츠를 활용해 장비 오퍼레이팅, 유지보수 방법 등의 스마트공장 기술·장비 기능을 실습하는 공간이다. PLC 실습실은 1인 1실습 장치를 갖춰 서보모터제어, HMI 제어, 통신연결, IoT연동 제어 등 스마트공장 요소기술을 실습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광주스마트공장배움터 PLC 실습실에서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했다. 김학도 이사장은 "광주스마트공장배움터는 스마트 제조, 디지털 뉴딜을 이끌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공급하는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다할 것"이라면서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지역기업의 제조현장 스마트화를 이끌고 호남 지역 산업의 혁신과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전남신보, 폐업 소상공인 상환 부담 줄여주는 '브릿지보증'

보증만기 6개월 이내 기업 연간소득 8천만원 이하 소상공인

전남신용보증재단이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브릿지보증'을 확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브릿지보증은 전남신보를 이용하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기존 사업자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해 정상적인 채무상환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폐업사업자는 대출 만기도래 시 남아있는 채무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했다. 만일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도판단정보에 등재되는 등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제도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남신보는 지난해 7월부터 브릿지보증을 통해 채무를 최대 5년간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보증지원했다. 이로써 폐업 소상공인의 일시상환 부담을 경감해줬다.

전남신보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더욱 확대하고자 지원대상을 기존 보증만기가 1개월 이내 도래하는 기업에서 6개월 이내 도래하는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국세청 휴·폐업 조회 시 폐업상태 ▲개인신용평점 990점 이하 또는 연간소득 8000만원 이하의 폐업 소상공인이다.

브릿지보증 신청을 원하는 폐업 소상공인은 전남신용보증재단 각 관할지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도, 전도유망 중기 '스타기업' 발굴 나서

22일까지 모집 15개사 선정 전담 컨설팅·사업비 지원 등

전남도가 성장잠재력이 높고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큰 도내 중소기업에 지역 대표 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스타기업' 발굴에 나섰다.

스타기업으로 선정되면 첫 해에 전담PM(Project Manager) 컨설팅, 연구개발(R&D)과제 기획, 맞춤형 기업지원 등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다음해부터는 성과에 따라 연구개발 사업

비를 기업당 2억원 이내로 보조한다.

모집대상은 본사가 전남에 있는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이면서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25억원 이상, 400억 미만인 기업이다. 전남 주력산업인 그린에너지산업, 바이오헬스케어산업, 저탄소·지능형 소재부품산업, 첨단운송기기부품산업의 전·후방 연관 업종이어야 한다.

참여를 바라면 오는 22일까지 전남테크노파크 데이터플랫폼(data.intp.or.kr)에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요건심사와 현장평가, 발표평가 등 3단 과정을 거쳐 4월 중 15개사를 확정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KT, 창업진흥원과 5G 응용 분야 신사업 추진 협약

스타트업-대기업 협업 등 진행

KT는 창업진흥원과 미디어·인공지능(AI)·로봇 등 5G 응용 분야의 디지털 혁신(DX) 및 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8일 밝혔다.

KT는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창업도약패키지-대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공동수행하기로 했다.

협력 분야는 ▲5G 응용 분야 우수 창업 기업 선발 ▲공동 사업화 과제 선정 및 기술검증(PoC), 비즈니스 환경 지원 ▲사업화 자금 및 투자 연계 지원 등이다.

KT는 5G 응용 분야 우수 창업기업 모집을 위해 'KT-창업도약패키지' 스타트업 공모에 나선다.

공모 분야는 미디어, AI, 로봇, 온라인교육 등 5G 응용 분야로, 선발된 스타트업은 최대 3억원의

사업화 지원금과 함께, 신사업 추진을 위한 KT 전담 사업부서 매칭 및 멘토링을 지원받는다.

벤처캐피탈 및 액셀러레이터 투자 유치, 시설 이용 및 입주, 해외 전시 참여 등도 지원된다.

KT 관계자는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과 함께 개방형 혁신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혁신 서비스를 만들어 디지코(DIGICO) 기업으로의 성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중기부, 소부장 창업기업 20곳 키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의 혁신적인 창업기업 20개를 발굴해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소부장 스타트업 1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기부는 2020년부터 매년 20개씩 이 분야의 창업기업을 발굴해 지원해 오고 있다. 오는 2024년까지 총 100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 등 48개 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해 '극자외선(EUV) 장비', '3D 프린팅용 광경화복합소재' 등 75개 기술 수요를 제시했으며 향후 선정되는 창업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관련 기술을 개발한다.

올해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예비)창업기업은 사업계획서·기술소개서(RFP) 등을 작성해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